



한국 불암사판 <석씨원류> 중 싯다르타 태자 유성출가상의 한 부분

# 청마의 해, 행복 전하는 馬 보러 오세요~

명주사 고평화박물관 4월 30일까지 전시

'행복의 전령자, 판화로 보는 말' 주제 기획전  
'말' 주제로 한 아시아 판화 100여 점, 한자리



일본<석씨원류> 중 싯다르타 태자 유성출가상의 한 부분



중국 청대에 제작된 말울탄 월직사자(저승사자). 49재 등 의식에 사용된 회귀작.

청마의 해를 맞아 말(馬)을 주제로 한 아시아 판화 100여 점이 한자리에 펼쳐진다.

원주 치악산 명주사 고평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4월 30일까지 '행복의 전령자 - 판화로 보는 아시아 말의 세계' 특별전을 개최한다.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 일환으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전시전에서는 말을 아시아의 판각문화로 승화시킨 한국, 중국, 일본, 티베트, 몽골의 말 관련 목판 원판 40여점, 인출판화 30여점, 판화만 현존하는 자료, 서책 40여점 등 관련 자료 100여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품 중에는 망자를 극악으로 인도하는 저승사자인 일직·월직사자와 아마타불이 양면으로 제작된 판화가 눈길을 끈다. 이 판화는 청나라 때 제작된 것으로 49재 등 불교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목판화로는 희귀 작품이다. 말 위에 앉아 근엄한 표정을 짓는 사자들의 모습과 밝은 미소로 웃고 있는 아마타불의 모습이 해학적으로 표현됐다. 이와 함께 염라대왕 판화도 함께 전시돼 그 의미를 전한다.

이 외에도 부처님 출가 일대기를 담은 팔상성도 중 '유성출가상'을 표현한 목판화도 선보인다. 이 유성출가상은 한국과 일본의 판화를 함께 전시해 비교해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불암사판 석씨원류>(부처님 일대기) 판본으로 선비의 옷을 입은 싯다르타 태자의 모습으로 표현됐다.

이에 대비해 일본의 경우 일본에도시대 <석씨원류>에 있는 유성출가상으로 여성스러운 복장을 한 왕자의 모습으로 표현돼 이채롭다.

이 밖에 정월 대보름 날 옥황상제가 복을 내려 준다는 풍속을 판화로 표현한 '천관사복'을 비롯해 설날 그림날 조왕이 복을 준다는 풍속을 표현한 '선화복수' 목판과 삼국지에서 관오와 황충이 말에서 싸운 장면을 표현한 적토마 등 3점이 최초로 공개된다.

우리나라 작품으로 민간에서 사용하였던 '신마' 판화와 김유신장군의 묘, 진성여왕의 묘에 조각된 탁본 등도 함께 전시된다.

고판화박물관은 이번 전시 기간에 소원성취 풍마달기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풍마(風馬)는 티베트, 몽골인들이 깃발을 만들 때 그림 중앙에 넣는 말 문양으로, 말이 깃발을 든 사람의 소원을 싣고 하늘로 올라가 소원성취를 돕는다는

는 풍속에서 유래됐다.

한선학 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이 청마의 기상을 닮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 한중일 '말' 주제 판화 무엇이 다른가?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말은 행복을 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천관인 옥황상제를 싣고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거나 조왕신이 옥황상제로부터 상을 받은 것을 말에 싣고 사람들에게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죽은 자에게는 일직사자 나 월직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아마타 부처님이 있는 서방정토로 인도하는 역할도 띄어 인도자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동아시아, 특히 불교에서 말그림은 판화로 제작돼 사찰에서 길상의 부적으로 보급했다. 여기에는 무병장수를 의미하는 말을 타고 있는 보살상이나 신장들의 모습을 담았다. 천도재 등에서도 열반도나 일직사자·월직사자의 모습을 찍어낸 부적들이 많이 사용됐다.

하지만 한중일 삼국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는 도교의 영향으로 불교판화에서도 세시풍속 등과 연관된 흔적이 남아있다.

일본에서는 일본불교 특유의 기복성이 판화에서 반영돼 부적형태를 띄고 있다. 현재도 일본사찰에서는 말 그림을 부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천마총의 천마도를 비롯한 길상의 상징으로 천마가 사용되었으나 불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진행되는 49재에서도 불화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티베트·몽골 등 티베트 불교를 신봉하는 나라에서는 지금도 기도행사에서 소원성취의 의미로 말문양인 '풍마'(風馬)를 사용하고 있다. 마을 입구 등에 끈고 긴 장대를 세우고 장대 끝에 불교경전 문구와 말 그림을 그린 긴 천을 다는 것이다. 이것이 말 갈기와 흡사하다고 하여 풍마로 불린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아시아의 민족들이 각기 공통점과 차별성을 가지며 말과 함께 행복을 누리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티베트 '풍마' 말 문양 판화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 구단구궁법

특  
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 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인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